

흰등멸구에 대한

저항성 도입

착실히 진전



서울대학교농과대학

許 文 會 박사

＝수도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품종 육성 현황과 전망＝

농약의 살포에도 불구하고 병충해로 인한 벼수확량의 감소율은 지난 10년동안 병해로 5.3%, 충해로 3.0% 합계 8.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내병충성품종의 효율적인 재배는 농약사용량을 경감시킬뿐만 아니라 약제 시용에 대한 효율을 높일수 있으므로 내병충성품종에 대한 기대는 매우 크다.

고도의 수직저항성(vertical resistance)을 가진 몇개 통일계품종의 심한 이병화와 1980년의 냉해 그리고 시장 기호성의 추세변동으로 인한 통일계품종의 재배면적 감소로

상대적으로 증가된 일반계품종의 다양화는 품종의 병충저항성면에서는 신품종육성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한편 품종면에서는 저항성원의 광범한 탐색과 수집·결합 그리고 육종의 방식등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특히 국가의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상당히 증진되어가고 있다.

도열병 다음으로 어려운문제가 흰빛잎마름병에 대한 저항성의 보편화인데 병원성의 유별과 이에 대응되는 저항성원의 발굴이 국제적으로 진전되어 이들 저항성원을 우리 품종육성에 조합하는 일은 비교적 순

◇ 수도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품종육성의 현황과 전망 ◇

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비교적 잠재적 피해력이 큰 Vius 병들에 대해서는 통일벼종품들이 가진 저항성으로 지난 10년간 큰 피해를 모를 정도로 잘다스려져 왔으나 앞으로 일반형품종 육성에서 강조되어야 할 사항이다.

과거 내충성육종은 주로 벼멸구에 대한 저항성도입에 국한(局限)되다 시피 하였으나 최근들어 흰등멸구에 대한 저항성 도입에도 노력을 기울이게 되어 비교적 확실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의 비래원천인 중국 남부지방에서의 Biotype의 변이를 주시하면서 모든 Biotype에 대한 저항성품종의 육성대비를 시도하고 있다.

국제미작연구소(IRRI)와의 긴밀한 협조는 병충의 전염원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저항원에 대한 정보 및 자료 품종의 수집과 우리 육성계통들의 성능검정까지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이방면의 적극적인 연구가 기대되고 있다.

(농약빈병회수에술선참여합시다)

논두렁 · 밭두렁 · 수로변등에 함부로 방치된 농약빈병은 자연환경의 파괴는 물론 토양 및 수질오염을 초래 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깨진 농약빈병에 우리의 귀여운 자녀들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쓰고난 농약빈병은 새마을 영농회별로 설치된 빈병수집장에 모아 안전하게 폐기토록 하거나 새마을 영농회장에게 반납토록해 빈병공해 없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꾸는데 우리 모두 앞장서야겠습니다.